

70年代末에서의 價値, 態度 및 信念으로 본 한국인의 世代差(1)

車 載 浩
서울大學校 心理學科

한국인의 가치, 태도, 및 신념의 시대적 변천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177개 문항으로 된 질문지를 두 세대, 즉 20대와 50대 성인, 각 300명에게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45개의 가치에 관한 문항의 결과만을 다루었다. 표집은 성(2)×세대(2)×학력/거주지(3)의 直交設計하에 각 칸에 50명씩의 임의표집 방법으로 얻었다. 연구결과는 (1) 현재(1979 당시)의 가치의 위치와 (2) 이 자료에서 관정된 시대적 변천의 유무 및 방향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분석하였다. 20개의 가치는 세대차가 없었으나 다른 25개의 가치에서는 20대와 50대 간에 세대차가 있어 가치의 세대간 갈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14개의 가치는 지난 30여년간 가치변동이 없었다는 시사를 얻고 다른 15개에서는 이 기간에 가치의 변동(상승 또는 쇠퇴)이 있었다는 시사를 얻었다. 이 연구는 同時的資料(橫斷의 연구에서 얻은 자료)에서 世代間의 차이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時代間變動을 알아내는 방법의 첫 적용이다.

여기서 보고하는 자료는 원래 “韓國人の 性格과 意識”이라는 제목하에 1979년에 필자가 수행한 연구(韓相福 外, 1980)의 일환으로 수집된 질문지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그 연구계획은 文獻자료에 입각한 연구와 질문지조사에 입각한 연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었다. 이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른 곳(車, 1980)에 일차적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결과가 자세히 그리고 완전히 발표된 바가 없었다. 여기서는 따라서 질문지조사 부분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보다 자세히 보고하려 한다.

前記한 필자의 연구는 보다 큰 연구주제, “韓國人の 性格과 意識의 連續과 變化(舊韓末부터 1970년대까지)”의 일부였으므로 필자는 그 질문지조사에서 解放後의 한국인의 價値, 態度, 및 信念(以下 “意識”이라 부름)의 時代的 變遷을 보려했다. 이를 위해서는 비슷한 연령의 표집을 두 다른 時點(가령 30년의 간격을 둔)에서 관찰하는 소위 通時的연구설계(車, 1985)를 써야 하나 주어

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79년 현재 20대와 50대(또는 그 이상의 연령층)을 조사해서 두 年齡集團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뿐이었다. 원래 이 조사연구가 계획되었을 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각종 意識을 재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要因分析(factor analysis) 하는 것이었다. 만일 요인들이 발견된다면 그들은 한국인의 성격차원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 목적을 위해 다양한 문항들(각종 가치, 여러 영역에서의 태도와 신념들을 망라한)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조사는 다른 조사들이 포함했던 것보다도 다양한 意識을 다루는 문항들을 내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조사에서 얻는 자료를 토대로 (1) 1970년대 말의 한국인의 여러 분야에서의 意識이 어떠한으며, 이런 意識이 각 계층간에, 특히 20대와 50대간에 어떻게 달랐으며, 그리고 (2) 어떤 意識에서 時代的變遷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는 한 時點에서 수집된 橫斷的 연구의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이런 同時的 자료에서 時代的變遷을 추정하는 일은 특별한 조심을 요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價值부문의 결과를 다루고, 다음 기회에 態度와 信念 부문의 결과를 다루기로 하겠다.

同時的자료로 부터의 時代的變遷의 추정

본 연구는 앞에서 말한 대로 단순히 意識의 내용이나 집단간의 차를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意識의 時代的 變動(또는 世代간의 변동)을 보는데 관심이 있었다. 價值, 態度, 또는 信念의 時代的(世代的) 變遷을 연구하는 가장 적합한 형태의 연구는 필자가 通時的(diachronic) 연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1980년 경부터 우리나라의 意識연구들 사이에는 通時的연구들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車, 1985). 본 연구에서는 한 시점에서 2개의 世代層(연령도 다르고 生年도 다른 집단들)을 표집하여 이들 世代層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것으로 時代的變遷을 알아 내려 했다. 이 방법은 發達心理學에서 橫斷的(the cross-sectional) 연구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이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이 방법은 연령(나이)의 효과를 보기 위해 사용되나 여기서는 時代的變遷의 유무를 확인하는 새로운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 時點에서 수집된 자료에서 연령층간을 비교하여 時代的變遷을 추정할 수 있는지는 당연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약간의 해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世代間 비교의 방법론(예: Baltes, 1968; Baltes & Reinert, 1969; Schaie, 1965)에 대하여 자세히 다룰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同時的 자료에서 時代的變遷을 추리할 수 있는 이치(rationale)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수는 없다. 이들 문제는 별도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간단히

同時的인 자료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서 필자가 時代的變遷을 추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지를 기술하는데 그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橫斷的研究설계는 원래 발달심리학자들이 “나이”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쓰던 것이나 發達을 同生群(birth cohort), 年令(age), 그리고 測定時點(time of measurement)의 함수로 보는 일반화된 발달모델(Buss, 1974 참조)에서는 橫斷的研究설계에서의 年令層間 差異가 年令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만 보는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Wohlwill, 1970). 이제 그런 설계에서의 年令層間的 차이는 同生群(cohort)의 효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음이 분명해졌다(Buss, 1974).

여기서 年令層이라는 것은 記述的인 수준에서 世代(generation)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世代差는 年令層 간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문제는 단순히 年令層(世代)間的 차이를 아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時代間 차이”까지 알려 할 때 생긴다. 橫斷的 자료에서 年令層 간의 차이는 同生群과 年令(나이)의 효과를 함께 담는다. 그런데 “時代間”이란 것은 同生群의 효과와 같은 것이다.

同時的(橫斷的) 자료를 토대로 時代的變遷의 유무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은 얻은 年令層 간의 차이가 “나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年令層 간의 차이는 時代差(同生群의 효과)를 반영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Buss는 橫斷的 자료에서 순전한 연령(나이)의 효과를 제외시키고 世代(그는 世代를 同生群에 딸린 차이와 같게 본다)의 효과만을 알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조사년도(예컨대 1940년)내에서 보

同 生 群 (출생년도)	조 사 년 도	
	1940	1950
1900	40*	50
1910	30	40
1920	20	30
1930	10	20

* 피조사자집단의 연령

면 이 설계는 전형적인 橫斷的 연구설계이다. 이와같은 연구를 10년 뒤(위의 예에서는 1950년)에 다시 반복한다. 이런 橫斷的 설계가 반복된(그러나 동일 개체의 반복측정은 아니다) 설계를 그는 橫斷的時系(the cross-sectional sequential) 설계라 부른다. 이 설계의 특징은 같은 同生群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다시 관찰(측정)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설계를 내세우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世代의 문제와 연령(나이)의 문제를 분리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설계를 보면 列(co-

lomn)의 효과속에는 조사년도의 효과와 나이의 효과가 혼합되어 들어 있다. 同生群(行)의 효과속에는 世代의 효과와 연령(나이)의 효과가 섞여 있다. 그런데 行의 효과와 列의 효과속에 끼어 들어간 연령의 효과는 엄밀히 말해 단순한 연령의 효과는 아니다. 왜냐 하면 40歲와 50歲간의 차이와 20歲와 30歲간의 차이의 의미는 다른데 이 차이들을 평균한 효과(조사년도간의 효과를 볼 때 처럼)는 해석이 애매해진다. 1940년조사와 1950년조사에는 40歲집단이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두 조사년도에 30歲집단이 각각 나타나므로 이들을 비교하면 연령의 효과를 분리시켜 낼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은 또 同生群의 효과와 얽혀 있다. 따라서 이 설계도 순수한 세대(同生群)의 효과를 알아내기란 어렵다. 단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각 조사년도에서 따로따로 世代간의 차이를 보고 그 결과가 조사년도간에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것은 첫 조사에서 나온 世代差의 결과를 몇 해 뒤의 橫斷的 조사에서 확인을 받는 방식이다. 첫째(예: 1940년) 조사 때와 같은 同生群이 10년 뒤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데 世代간에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同生群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절차의 문제는 世代간의 차이가 두 조사에서 같게 나오면 결론이 비교적 분명히 나올 수 있으나 만일 같게 나오지 않으면 애매해진다. 왜냐하면 두 조사에서의 연령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1940년에는 10歲에서 40歲까지이나 1950년에는 20歲에서 50歲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횡단적 설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에

출생년도(연령)*	학력/거주지		
	농촌/국졸이하	서울/국졸-중졸	서울/대학
1950-1959(20대)	20대	20대	20대
1920-1929(50대)	50대	50대	50대

*1979년 현재.

서 필자가 世代(여기서는 당분간 世代=同生群=時代로 생각해두기로 한다)간의 차이를 알아내는데 사용한 방법이란 再構成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조사시점(이 경우 1979년)에 어느 가치, 태도, 또는 신념에 변동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 상황에서 생길 年令層간 차이와 學歷層(또는 거주지)간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관찰된 결과가 이런 예상되는 패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世代간의 차의 유무는 우선 年令層간의 차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확인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 年令層간에 차이가 있으면 우선 世代의 효과일 가능성이 생긴다. 다음의 절차는 이것이 연령(나이) 자체로 설명이 될 수 없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다. 횡단적 자료에서 이를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年令層간의 차의 방향이 순전히 나이의 효과로 설

명이 될 수 없는지, 가능한 한 나이와 이에 따라 달라지는 요인들에 의한 年令層의 효과의 설명을 찾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력이 강해지고, 또 대체로 보수적이 되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등등의 나이와 관련된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요인에 의한 설명은 世代에 의한 설명에 대해서 競爭假說(rival hypothesis)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쟁가설로 얻어진 결과가 설명이 안 될 때 우리는 얻어진 年令層간의 차이가 世代의 효과라는 것을 보다 자신있게 단언할 수 있다. 世代差라는 해석이 내려지면 이것은 時代的 變遷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時代的變遷은 필자가 通時的 설계(車, 1985)라고 부른 연구에서나 확실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이나 世代差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世代差를 보면 어떤 기간(時代區間)안에 어떤 意識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가령 현 연구에서 처럼 20대와 50대 사이에 어떤 차이가 관찰되면 그것은 20대가 살고 있는 현재(1970년대 말)와 50대가 20대였던 1920년대 사이에 어떤 의식변동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通時的 연구와는 달리 횡단적 설계와 같은 同時的 연구(車, 1985)에서는 정확한 연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략 1920년대와 1970년대 말 사이의 어느 시점 또는 기간에 변동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時代的變遷의 유무를 판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번째 정보가 學歷과 거주지와 같은 응답자 변인이다. 學歷과 거주지(농촌-대도시)는 가치, 태도, 또는 신념의 변산을 최대한으로 흡수하는(설명하는) 변인이다. 따라서 이들 변인을 고정시켜 놓으면 연령차는 최소한으로 되고 나타나기도 어렵게 된다(젊을 수록 학력이 높고 대도시에 살 가능성이 높고 거주지가 대도시이거나 學歷이 높을 수록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學歷과 居住地를 고정시키면 연령차속에 世代의 효과는 반영되기 어렵고(교육수준이나 거주지분포는 世代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나이의 효과와 時代的 효과 — 同生群효과속에서 學歷과 居住地 등의 효과를 제외시키고 남은 — 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즉 學歷/居住地가 고정된 상황하에서 얻어진 年令層간의 차이는 보다 순수한 나이의 효과와 時代的 효과를 담는다.

이제 할 일은 둘 중 어느 쪽이 우세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학력이 통제된 상황하에서 연령층간에 있을 수 있는 時代差는 교육의 내용일 것이다. 같은 대학이라도 시대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 또 연령차는 학교 밖에서의 가르침의 時代的 차이를 반영할 것이다. 만일 연령차속에 들어 있는 時代的 효과가 가르침(학교 내외에서의 교육)의 내용에 있다면 이런 차이는 이 설계에서의 학력수준/거주지 층간에도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50대가 보다 보수적인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면(그들이 20대였던 1920년대

에) 이 효과는 학력수준이 낮고 농촌에 거주하는 층에 더 잘 보존이 되어 있을 것이다. 즉 50 대와 농촌거주/저학력층의 의식의 일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치란 차이의 방향의 일치이다. 年長層의 보수화추세는 저학력(농촌거주) 층의 보수화추세와 짝지어진다. 만일 이와 같은 연령과 학력/거주지의 차이들의 방향의 일치가 있다면 이는 연령차속에는 時代的變遷의 효과가 들어 있다는 한 증거가 된다. 만일 연령차가 단순히 나이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면 연령차와 학력/거주지차의 일치의 방향은 반대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나이 자체는 時代的 효과와는 별도로 사람을 年壽이 높을수록 더 건강에 대해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나이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時代的인 變遷의 결과가 아니고 단순히 나이들어 몸이 쇠약해지는 탓인 경우 저학력/농촌거주 응답자가 50대의 응답자와 같은 방향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나이는 누구나 드는 것이므로 저학력이나 고학력이나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고학력층이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高연령층과 低학력층의 일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은 연령간의 차이가 단순한 나이차를 반영할 때 그렇게 되기 쉽다. 이것은 근대화가 진행될 때 새로운 意識이 생기거나 전통적인 意識이 소멸하는 것은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앞서고 高학력층이 低학력층보다 앞선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意識變化의 확산은 시간을 요하고 따라서 意識의 時代的變遷을 뜻하게 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미루고 결론적으로 요점을 말하면 만일 연령의 주효과가 있고 더붙어서 학력 또는 거주지의 주효과가 있고 또 연령과 학력(또는 거주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으면서 주효과들의 방향과 상호작용효과의 방향이 意識變化의 전파에서 예상되는 것이면(상호작용효과에서 시대적변천이 시작되지가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학력차가 젊은 층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意識의 변동이 오래전에 시작된 것일 경우에는 오히려 젊은 층에서 학력수준의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측정 한 해와 응답자가 젊었던 시절(10대나 20대에 있던 년도) 사이에 意識變化가 있었다고 관정하게 된다.

물론 이런 同時的 자료에 입각한 時代的變遷의 추정은 通時的 자료에 터를 둔 추정만큼 확실하지는 못하고 따라서 다른 자료에서 나온 결론과 대조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通時的 자료는 얻기 힘들다. 同時的 자료에 입각한 時代的變遷의 추리는 보다 좋은 자료가 없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다.

方 法

應 答 者

모두 600명의 기혼성인을 조사했다. 표집은 年令(20대, 50대이상), 性(男,

女), 그리고 學歷/居住地(국졸이하/農村, 국졸—중졸/서울, 大學3년이상/서울)의 3변인을 교차시켜 얻은 12개($2 \times 2 \times 3$) 對比集團들(contrasting groups) 각각에 임의로 50명씩을 취했다. 따라서 응답자는 20대와 50대 이상(다음부터는 50대라고 부를 것임)이 각각 300명이고, 男과 女가 各各 300명, 그리고 低學歷/農村, 中學歷/서울, 그리고 高學歷/서울이 각각 200명씩이었다.

標集方法

農村거주의 응답자는 모두 면소재지 보다 작은 단위의 부락에 사는 사람들로써 京畿道 華城郡 동탄면(석우, 반송, 정계, 반교, 산척, 장지 및 영지리), 坡州郡 문산읍(반동리), 全羅北道 扶安郡 부안면(동정리), 高昌郡 공음면(칠암리)와 고수리(예지리), 井邑郡 북면(오정리, 영원면, 후지리)과 정주면(농송리) 거주자들이었다.

서울의 경우는 市內一圖에서 지역제한없이 임의표집을 얻어 조사했으며 夫婦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표집을 하는데 사용된 단 한가지 기준은 어떤 小地域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면(이 선정은 임의로 하였다) 그 안에 거주하는 調査對象으로 適格인 사람은 전원을 조사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기준을 사용한 것은 응답자 선발에 끼어들 수 있는 조사자표집의 偏向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한 지역내에서 조건을 구비한 응답자를 더 얻을 수 없을 때는 새로운 소지역을 임의로 잡아 같은 방침하에 조사해 나갔다.

對比集團을 年令, 性, 및 居住地—學歷별로 나눈 것은 이들 변인이 價值, 態度 및 信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이들 分類集團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年令은 世代差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價值, 態度, 및 信念이 변해갈 추세,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意識의 이제까지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있을 時代的 變遷을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 분류에 이용했으며, 마찬가지로 居住地域과 學歷을 결합하여 응답자를 農村/低學歷, 서울/中學歷, 그리고 서울/高學歷으로 나눈 것은 大都市居住와 高學歷이 모두 現代化를 대표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배경이기 때문이었으며 따라서 이 분류의 효과는 연령차와 더불어 과거 또는 미래의 時代的 變遷을 추정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學歷과 居住地的 효과가 어떻게 연령층간의 차이와 더불어 時代的 變遷의 추세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는 서론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價值, 態度, 및 信念에 크게 영향을 줄 이상의 3개 분류변인들을 사용해 層化標集을 한 것은 이들 분류변인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을 지녔으나 각 對比集團내에서 무선표집을 하지 않고 임의 표집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한국인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제약점을 지닌다. 그러나 연령집단내에서 다른 분류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얻는 수치는 한국인 일반에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質 問 紙

질문지는 모두 177개의 문항을 담은 것으로 16절지 크기(18.5 cm×26.0 cm)로 양면 인쇄된 16매 짜리 소책자이었다. 표지에는 “전통문화설문지”라는 제목이 위에 나오고 그 아래에는 조사취지와 지시문이 적혀 있었다.

문항들은 (1) 價值(value)를 알기 위한 문항들, (2) 態度(attitude)를 알기 위한 문항들, (3) 중요한 社會狀況의 해석이나 價值들의 概念的 내용을 알아보는 信念(belief)을 다루는 문항들, (4) 自己生活水準의 評定을 요구하는 문항들, 그리고 (5) 性格變因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들 문항의 선정기준은 한국인의 傳統的 및 現代的 價值, 態度 및 信念을 망라하고 한국인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3종이 있었는데 (1) 兩肢중 擇一을 하는 것(예: “인간관계에서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가) 약속을 지키고 신용있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나) 한편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뜻이다”)이 152개, (2) 주어진 말에 대해 贊反(“그렇다” 또는 “아니다”)으로 답하는 것이 22개, 그리고 (3) 評點(rating)을 기입하게 되어있는 것이 3개 있었다.

問項들의 분포를 내용구분(가치, 태도, 신념 등)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문항은 態度를 다루지만 價值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信念에 관한 문항중에는 態度나 價值를 재는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보기: “현대인이 라면 (가) 남

구 분	문 항 수
價 值	45
態 度	33
信 念	74
기 타: 情動的性 格	10
強 硬 性 格	5
急 進 性 格	5
權 威 主 義	2
自己生活評價	3
계	177

이 하나까 한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나) 남들이 모두 할 때는 따라갈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보기의 문항은 현대인의 마땅한 행동양식에 관한 신

념을 다루는 것이나 동시에 피조사자들의 同調 내지 自主性에 대한 가치를 재기도 한다. 그러나 價值, 態度, 및 信念의 구분으로 문항을 분류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했다.

價値를 다루는 문항으로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문항속에 일반적으로 가치항목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가치의 이름이 하나 또는 두개 나와 있고 응답자의 반응을 토대로 이들 가치에 대한 선호가 추리되는 그런 문항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가장 분명히 충족시키는 문항은 두개의 가치항목을 직접 언급하면서 응답자에게 양자를 비교판단시키는 그런 것들이다. 단지 하나의 가치항목만이 언급 또는 시사되어 있는 경우, 즉 다른 가치항목과의 비교가 요청되지 않는 문항의 경우에는 選肢에 대한 응답자의 선택이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나타낼 수 있으면 이도 가치를 재는 문항으로 간주하였다(예: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재미를 모르는 것이다; (나)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보다 나을 것이 없다”). 위에 나온 예에서는 일하는 가치항목에 대한 평가가 선지의 선택에서 드러난다. 한 문항이 態度를 다루는 문항으로 분류되려면 먼저 구체적인 태도대상이 문항속에 드러나 있거나 그런 구체적인 태도대상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한다(예: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가) 상하의 구별이 분명하여야 한다; (나) 모든 사람이 높고 낮음이 없고 오로지 하는 일만 나누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예에서 태도대상은 상하의 구별이고 “구별이 분명하여야 한다”나 “모든 사람이 높고 낮음이 없고…… 있어야 한다”와 같은 말에 태도대상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다. 위 예에서 “사회질서의 유지”가 태도대상이 아님은 문맥에서 명백하다. 信念으로 분류되는 문항은 대개 다음 몇가지의 하나에 해당한다. (1) 어떤 언어 개념에 대한 해석(의미풀이)이나 정의(定義), (예: “평등한 사회란: (가) 모든 사람에게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 (나) 못 사는 사람들의 수입을 올려 생활수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2) 어떤 사실이나 상황 또는 실태에 대한 이해나 판단(예: “요즘 세상이 돌아 가는 것을 보면: (가) 정의가 이기고 있다; (나) 정의가 불의에 밀리고 있다”), 그리고 (3) 생활태도(예: “인생은 허무하고 한번 가면 오지 않는다: (가) 어찌 부지런히 할 일을 끝내려 서둘지 않을 소냐; (나) 늦기전에 아니 놀고 어찌하리”)가 그것들인데 셋째번의 예가 價値의 문항이 아니고 信念의 문항으로 구분되는 것은 문맥상으로 어느 특정한 가치가 시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할 일을 끝낸다”는 것이 반드시 부지런함이라는 가치를 가르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일을 일찍 끝내고 놀러는 뜻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앞에 온 글귀가 인생의 허무함을 말했기 때문이다.

資料蒐集節次

자료수집은 고용된 10 명의 女大生들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각 호주를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서 질문지를 실시하고 응답자의 응답을 얻어내었다. 독해력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는 면접자가 배석한 상황에서 질문지를 스스로 읽고 자신의 반응을 기입하게 하였다. 다른 응답자, 특히 저학력과 고령의 응답자에 대해서는 면접자가 일일이 문항을 읽어 응답자의 답을 듣고 면접자가 답을 기입하였다. 면접은 대학원생들이 지휘하고 감독하였다.¹⁾

면접은 사례에 따라 달랐으나 약 30분에서 2시간 걸렸다. 조사는 1979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 사이의 약 2주동안에 실시되었다.

資料處理

자료의 처리는 KIST의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SPSS(Nie, Hull, Jenkins, Steinbrenner, & Bent, 1975)속의 ANOVA분석을 하였다. ANOVA는 각 문항에 대해 성(남, 여), 연령(20대, 50대), 그리고 학력/거주지(국졸이하/농촌, 국졸이상 중졸/서울, 대학학력 이상/서울)로 된 $2 \times 2 \times 3$ 의 三元分析을 했다.²⁾

結果와 論議

결과는 각 문항마다 性別, 年令層別, 그리고 學歷/居住地別로 평균치를 제시하였다. 또 相互作用效果(the interaction effects)가 유의한 경우에는 年令層 $\times$ 學歷/居住地 상호작용효과에 한하여 모든 관련된 칸(cells)의 평균을 아울러 제시했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보고서는 價値를 다루는 문항들에서 얻은 결과에 국한된 것이다. 결과의 해석의 초점은 두가지이다. 즉 (1) 價値觀의 실태(1979년 현재)와 (2) 지난 30년 사이에 價値의 變動의 유무의 추정이다.

價値를 다룬 45개의 문항의 평균치가 표1에 나와 있다. 비교집단의 평균치는 차이(主效果)가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경우에만 제시했다. 이 표에는 또 상호작용효과 각각의 유무 여부도 표시해 두었다. 문항들은 내용이 비슷한 것들을 대체로 묶어 제시했다. 가치를 잴 때는 가치들간의 선호순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연구에서는 2개의 가치들이 한 문항 안에서 비교되는 일은 있으나 포함된 모든 가치들간에 선호 서열을 알 수 있도록 방법에 설계가 된 바가 없다. 다만 몇 문항에서 같은 가치가 계속 다른 가치와

註 1. 자료수집은 대학원생 李鍾鉉과 金惠淑이 도와주었다.

註 2. 자료분석은 李鎮煥이 전담하여 수고하여 주었다. 뒤늦게 사의를 표한다.

작지어 나타난 일은 있으므로 계속 나타나는 가치를 중매로 3개 또는 그 이상의 수의 가치들의 상대적 선호서열을 알아 볼 기회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2개의 선지중 두번째 선지를 택하는 반응을 1로 채점하고 첫 선지의 선택반응을 0으로 채점하였으므로 평균이 50%를 넘는 것은 두번째 선지의 선택이 첫번째 선지의 선택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부터 표1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忠孝에 대한 가치

충효사상은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문항 151. 이하 #151과 같이 표기함). 그러나 20대는 50대만큼 충효사상을 중히 여기지는 않는다($p < .001$). 또 학력/거주지(이하 “학력”이라고 약칭할 것임)가 고학력/서울거주일수록 충효사상을 덜 중요시한다. 충효사상이 가장 낮은 층은 대학 학력의 20대로서 이들의 거의 반(45%)이 중요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이 특이한 것은 다른 집단들이 이 반응을 보인율이 9%에서 19%미만이었던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다른 문항(#22)은 가장 떠 받들어야 할 것이 자기 나라인지 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인지를 선택케 하였는데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나라쪽을 약간 선호하는 경향(59%)을 보였다. 다른 문항(#20)에서는 국가와 가족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평가되어 나왔다. 이들 두 문항에서도 나라를 가장 덜 중시한 것은 20대의 서울/고학력층으로 이런 경향이 젊고 대학에 다녀본 층이 나라에 대한 충성임이 약한 탓인지 또는 가족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커서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들 두 문항들(#22와 #20)에 각각 세대(연령층)차가 유의했는데($p < .001$, $p < .01$) 20대가 50대보다 나라를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 문항(#21)은 나라에 대한 忠과 부모에 대한 孝를 대치시켰는데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효를 더 중시하는 경향(58%)을 보였다. 여기서도 세대차가 있어서($p < .01$) 20대가 50대보다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경향(63%)을 보였다. 이들 젊은 층에 비해 50대는 대략 나라와 부모를 비슷한 정도로 선호했다.

이로 보아 1979년 현재 나라는 가족과 대략 비등한 가치로 존재하며 50대는 가족보다 나라를 더 중요시하나 20대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특히 高학력(대학 학력이상)의 20대는 忠孝사상 자체의 가치를 의문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으며 다른 부류의 응답자와는 판이한 정도로 나라의 가치를 낮게 본다(이들의 특이한 반응이 孝에 대한 높은 가치때문이 아님은 어느 정도 확실하나 가족에 대한 높은 가치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다. 아마도 양자가 다 해당될 것이다. 즉 나라의 가치는 낮고 가족에 대한 가치는

〈표 1〉 價値문화별로 본 비교집단들의 평균치

가 치 문 항(문화번호)	전체	성별(S)		세대(A)		학력수준(E) ⁵		상호작용	A × E
		남	여	20대	50대	국	중 대		
나라에 대한 충 대 부모에 대한孝(21) ¹	57.5 ²	51.7	63.3 ^{**3}	62.7	52.4 ^{**}	47.5	57.0	A × S × E ^{**}	12 19 45 ⁴ 9 14 19
충효대상 : 충효하다 대 중요치 않다(151)	19.7	-	-	25.3	14.0 ^{***}	10.5	16.5	A × E ^{**}	38 35 74 28 34 39
나라 대 자신과 가족(22)	41.3	33.3	49.3 ^{***}	49.0	33.7 ^{***}	33.0	34.5	A × E ^{***}	50 52 25 61 49 53
가족다름에 국가 대 국가다름에 가족(20)	48.3	54.3	42.3 ^{**}	42.4	54.4 ^{**}	55.5	50.5	A × E ^{**} A × S × E [*]	
부모사랑 대 자식사랑(24)	13.2	-	-	-	-	17.5	13.5	-	
희생대상선택 : 자식먼저 대 부모먼저(34)	43.5	37.7	49.3 ^{**}	38.3	48.7 ^{**}	-	-	-	
남편/자식 우선 대 시부모 우선(129)	53.9	-	-	-	-	71.0	58.5	A × E [*]	64 62 36 78 55 56
집안의 명예 대 자신의 성취(125)	57.5	-	-	65.3	49.7 ^{***}	47.0	52.5	-	
가족이나 가문 대 개인적 발전(128)	40.4	-	-	-	-	32.0	43.0	-	
전통풍습 : 유용 대 무용(23)	21.0	-	-	-	-	25.0	23.5	-	
힘 대 인간다움(26)	73.2	-	-	68.7	77.7 [*]	61.0	67.0	-	
논 버는 것 대 인심잃지 않는 것(27)	95.9	-	-	-	-	-	-	-	
명성 대 부(돈 많은 것)(25)	13.2	-	-	-	-	13.5	17.5	-	
높은 벼슬 대 부(28)	24.9	-	-	-	-	15.0	32.0	-	
자식의 직업 : 관리 대 장사(29)	21.0	27.0	15.0 ^{***}	-	-	-	-	-	
명성 대 높은 벼슬(30)	15.7	-	-	12.7	18.7 [*]	21.5	13.0	A × E ^{***} A × S × E [*]	11 14 13 32 12 12

〈표 1〉 價值문화별로 본 비교집단들의 평균치(계속)

가 치 문 항(문화번호)	집체	성별(S)		세대(A)		학력수준(E)			상 호 작 용	A × E
		남	여	20대	50대	국	중	대		
친구 선호 : 실용적인 사람 대 예술적인 사람 (105)	17.2	-	-	22.7	11.7 ^{**}	11.0	12.5	28.0 ^{***}	A × E [*]	12 18 38 10 7 18
침행복 : 인간관계 속 대 인간관계 밖(133)	26.5	30.0	23.0 [*]	-	-	-	-	-	S × E [*]	
신랑선택 : 경이 많고 부인아끼는 이 대 유능 하고 쓸세할 사람(134)	23.7	-	-	-	-	-	-	-	A × E [*]	17 32 28 27 19 19
밀을 짓 : 직장동료, 친구 대 인간대 인간의 이해심(104)	88.0	-	-	-	-	80.0	90.5	93.5 ^{***}	A × E [*] S × E ^{**}	87 88 96 73 93 91
직원선호 : 고보고분한 직원 대 능력있는 직 원(115)	66.8	73.3	60.3 ^{***}	71.4	62.4 [*]	57.5	64.0	79.0 ^{***}	A × E ^{**}	71 62 81 44 66 77
대우할 사람 : 능력 소지자 대 업적 소지자 (101)	54.9	-	-	49.7	60.0 [*]	-	-	-	-	
보수기준 : 능력분위 대 연령분위(117)	18.7	-	-	-	-	-	-	-	-	
인후보자 선택 : 잘 이는 사람 대 유능한 사 람(141)	84.9	-	-	-	-	83.0	81.5	90.0 [*]	A × S [*] A × E [*] S × E [*]	87 76 86 79 87 94
깨끗한 인생 대 풍부한 인생(106)	35.9	-	-	43.0	28.7 ^{***}	29.0	32.5	46.0 ^{***}	A × E ^{***}	24 34 71 34 31 21
인생재미 : 일하는 것 대 일하지 않는 것(116)	14.5	-	-	19.9	9.4 ^{**}	20.5	16.0	7.0 ^{***}	-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 : 의리 대 의리에 구애 받지 않음(135)	17.5	-	-	-	-	13.0	22.5	12.0 [*]	-	
현대인에 필요한 것 : 시비를 가리는 것 대 남의 잘못을 덮어두는 포용력(137)	59.2	-	-	53.7	64.7 ^{**}	-	-	-	A × E [*]	45 52 64 70 63 61
의존심 : 혼자한다 대 남의 도움을 얻어 보려 한다(147)	47.3	-	-	-	-	-	-	-	A × E [*]	44 53 35 44 49 59
남이 시키는 것 하기싫다 대 시키면 일하기 좋다(148)	43.9	-	-	36.0	51.7 ^{***}	48.0	50.0	33.5 ^{***}	A × E ^{***}	33 54 21 63 46 46
나대로 산다 대 남이 좋다는 대로 산다(149)	18.2	-	-	-	-	-	-	-	A × E ^p < .053	9 24 13 25 22 16

〈표 1〉 價値문항별로 본 비교집단들의 평균치(계속)

가 치 문 항(문항번호)	전체	정별(S)		세대(A)		학력수준(E)			상 호 작 용	A × E	
		남	여	20대	50대	국	중	대			
가문이를 아이 : 아들 대 아들딸 누구나(33)	58.2	-	-	68.3	48.0 ^{***}	52.5	57.5	64.5 [*]	A × S ^{**} A × E [*]	70	63 72
자녀 구성선호 : 아들 3명 대 딸 3명(66)	16.5	13.3	19.7 ^{**}	23.0	10.0 ^{***}	-	-	-	S × E [*] A × S × E [*]	35	52 57
자녀가치 : 매를 잇는다 대 자식 기르는 재미(31)	59.4	-	-	66.7	52.0 ^{***}	39.0	58.0	81.0 ^{***}	A × E ^{***}	58	56 86
자녀가치 : 가문잇기 위해 대 기본 잇기 위함 아님(32)	55.2	-	-	68.3	42.0 ^{***}	34.5	60.0	71.0 ^{***}	A × E ^{***}	20	60 76
돈 : 있어도 없어도 좋다 대 없어서는 안 될 것(12)	64.4	-	-	63.4	73.3 ^{**}	-	-	-	-	56	64 85
돈 많으면 : 함고 싶은 것 알 수 있다 대 불행의 씨도 된다(13)	48.2	-	-	-	-	-	-	-	A × E ^{**}	13	56 57
돈 : 천한 것 대 귀한 것(14)	64.2	-	-	58.7	69.7 ^{**}	-	-	-	A × E [*]	58	47 40
예의바른 것 : 어른존경 대 개인권리 존중(45)	46.9	-	-	53.7	40.0 ^{***}	26.5	46.0	68.0 ^{***}	A × E ^{***}	46	40 58
존경해야 할 사람 : 연장자 대 유능한 자(46)	63.7	68.7	58.7 ^{**}	-	-	49.5	65.5	76.0 ^{**}	A × E [*] · S × E [*] A × S × E [*]	48	58 70
나이 많은 이에 대해 : 존대해야 대 존대할 필요 없다(43)	23.4	-	-	28.3	13.4 ^{**}	-	-	-	-	73	66 70
기혼부인 : 정조지켜야 대 정조저질 필요 없다(70)	4.7	-	-	7.0	2.4 ^{**}	-	-	-	-	41	40 80
처녀의 정조 : 지켜야 대 안 지켜도 된다(71)	12.0	-	-	19.3	4.7 ^{***}	-	-	-	-	12	52 56
파부의 정조 : 지켜야 대 안 지켜도 된다(72)	49.7	55.7	43.7 ^{**}	56.7	42.7 ^{***}	43.0	47.5	58.5 ^{**}	A × E [*]	53	60 81
시간선호 : 과거와 현재 대 현재와 미래(99)	89.8	86.7	93.0 ^{**}	-	-	82.5	92.0	95.0 ^{***}	A × E ^{***}	46	71 71.

1. 문항번호는 가치문항 제목에 이어 괄호속에 제시되어 있음.

2. 50.0 이상은 後者선호.

3. $*** p < .001$; $** p < .01$; $* p < .05$.

4. 행 1은 20대, 행 2는 50대임. 또 列 1, 列 2, 및 列 3은 각각 저학력, 중학력, 및 고학력에 해당함.

5. 학력수준 국, 중, 대는 거주지/학력 구분으로 각각 근대화 압력에 노출된 정도가 저, 중, 고인 계층에 해당함.

높아져 있는 상태일 것이다.

價値의 時代的 變遷의 유무를 보기 위해 우선 세대와 학력수준의 주효과(main effects)를 보면 모두 유의하여 세대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50대가 단순히 나이탓으로 부모에 대한 효보다 나라에 대한 충을 강조할(#21) 이유는 없으므로, 또 그들이 나이탓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젊은 세대보다 덜 중히 여길(#22, #20) 이유가 없으므로 이런 세대차는 나이의 효과가 아닌 세대 자체의 효과이고 더 나아가 時代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충효사상의 중요성을 물은 질문(#151)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50대는 나이탓으로 젊은 20대보다 孝를 강조할 개인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관찰된 세대차만 가지고는 이것이 나이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문항에서의 세대차가 時代的變遷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학력수준의 효과를 보면 모두 주효과가 유의하고 효과의 방향이 時代的變遷에서 예상되는 것이었다. 즉 20대가 보이는 경향이 고학력층의 경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왔다. 따라서 나라에 대한 가치는 지난 30년간(어느 시점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후퇴해 왔으며(그리고 가족의 가치는 아마上昇했고) 충효사상도 후퇴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時代的變動에 관한 결론은 상호작용효과에서도 지지를 받는다. 4개의 문항중 하나(#21)만 제외하고 모두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는데(#151 $p < .01$; #22 $p < .001$; #20 $p < .01$) 모두 時代的變遷에서 예상되는 바대로 20대에서는 학력의 효과가 크고 50대에서는 학력의 효과가 작았다.

이 주제를 지나기 전에 性差에 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나라와 부모를 견줄 때 여자는 남자보다 부모를 더 중시했고(#21, $p < .01$) 여자는 남자보다 가족(나라에 비해서)을 더 중시했다(#22, $p < .001$; #20, $p < .01$). 충효사상의 중요성 자체에 관해서는 성차가 없었다.

부모 대 자식에 대한 가치

이 부문에 관련된 문항은 3개가 있는데 그중 2개(#24와 #34)는 자식과 부모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다루었고, 셋째(#129)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남편/자식과 시부모 중 어느 쪽을 더 위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첫 문항(#24)은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 사람은 은공을 갚을 줄 알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은공을 알지만 자식에게 잘 해주면 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부모에 대한 은공을 갚아야 한다는 쪽으로 대답하였다(87%). 세대차나 성차는 없었다. 학력차($p < .05$)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은공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번째 문항(#34)은 만일 한쪽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부모와 자식중 어느 쪽을 먼저 희생시킬 것인지를 물었다. 전반적으로 응

답자들은 자식을 먼저 희생시킨다는(56%) 가치를 약간 보였다. 학력수준차는 없었지만 성차($p < .01$)가 있었는데 여자보다도 남자가 자식을 먼저 희생시킨다는 쪽을 더 지지했다. 세대차도 있었는데($p < .01$), 50대는 대략 어느 쪽을 더 분명히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20대는 분명히 “자식 먼저 희생”이란 입장을 취했다(62%). 이 두 문항의 결과로 보아 부모의 은공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세대와 관계없이 뚜렷했으나 부모와 자식중 어느 쪽을 먼저 희생시켜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자식을 희생대상으로 삼겠다는 가치관을 약간 더 보였는데 이런 경향은 주로 20대의 젊은 층의 생각이 크게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문항과 좀 다른 각도의 문제를 다룬 셋째 문항(#129)은 새로 시집 온 며느리가 남편/자식과 시부모중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위해야 되는지를 물었는데 선택은 양자에 반반이었다. 또 성차도 세대차도 없고 다만 학력차가 있어서($p < .001$)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자식우선(대학 학력에서 44%)이란 입장을 보였다. 이 마지막 사실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핵가족에 대한 가치도 실제로 높아짐을 보여준다. 부모의 길러준 은공갚기를 강조한 다른 문항(#24)에서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부모은공 갚기를 강조한 것은 이들 응답자들이 부모가 그들을 교육시켜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나온 결과같다.

時代的變遷의 유무를 보면 세대차가 나온 문항이 문항 34뿐으로 이 문항에서는 20대가 50대보다 자식을 먼저 희생시킬 용의를 더 보였으나 이것은 세대차로 보기보다는 나이차로 설명이 되는 결과이다. 젊은 세대의 일부는 아직 자식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또 자식 기르는데 많은 공을 쌓지 못했으므로 자식에 대한 애착이 적을 것이다. 이에 반해 50대는 자식의 양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따라서 자식에 애착이 많은 반면 그들의 부모는 연로해서 사망할 연세가 되었거나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모희생시킨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듯 이 문항(#34)에서 학력수준의 효과가 없었다. 비록 세대차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강한 학력수준의 주효과를 보인 문항 129는 또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를 보여($p < .035$) 時代的變遷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인다. 이 상호작용효과의 내용을 보면 20대에서는 대학학력층이 유난히 핵가족(남편과 자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시부모 우선은 36%) 50대에서는 국졸(농촌)층이 다른 학력층보다도 유독히 시부모 우선(78%)이란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학력차나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치의 시대적 변동이 있었다는 심증을 얻는다. 우선 학력수준의 주효과(고학력층이 핵가족 우선의 가치관을 보인다)를 보면 고학력층의 응답자가 시부모를 제치고 핵가족을 우선적으로 위해야 할 생활상

향상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상호작용효과에서 보면 가치전파의 침단에 위치한 20대 고학력자들이 핵가족 우선주의사상을 보이고 가장 새로운 가치를 늦게 받아들일 위치에 있는 50대 저학력층이 가장 낮은 핵가족 우선주의 가치관을 보이는 것은 가치의 시대적변천모델과 맞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가치의 시대적 변천의 가능성을 추리하게 된다. 이 문항과 관련해서 두가지 점에 더 언급해야 하겠다. 하나는 비록 직접적인 증거인 세대차가 나왔다해도(자료에는 $p \leq .061$ 수준의 세대차가 있었다) 오히려 時代的變遷을 추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 하면 그런 세대차는 20대와 50대가 처해있는 생활상황의 차로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50대는 자신이 시부모가 될 처지에 있으므로 시부모의 가치를 강조했을 수 있다. 둘째는 세대차가 왜 나오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자료를 보면 세대차가 나오지 않은 것은 서울 거주 중정도 학력층(국졸에서 중졸까지)에서 20대가 50대보다도 오히려 시부모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다른 두 학력층에서는 50대가 20대보다 시부모의 가치를 더 강조했다. 중정도 학력층에서 이와 같은 예상과 어긋나는 경향이 생긴 것은 20대의 중졸과 50대의 중졸의 질의 차이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중졸은 현재의 고졸이나 전문대학 정도의 지식계층에 상응하는(실제 배우는 양이나 수준은 비록 지금의 중학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우위에 있을지라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50대의 중정도의 학력층은 20대의 중정도 학력층보다는 오늘의 대학 학력소지자층에 근접하는 사고방식을 가질 것이다. 즉 50대도 농촌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가치변화를 했기때문에 세대차가 나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다른 문항에서 중정도 학력층에서 자주 발견되는 예상밖의 결과는 이와 같은 20대와 50대의 지식계층의 불일치때문에 나왔다고 보면 이해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들 3개 문항에는 時代的變遷이 있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나 다만 시부모에 대해서 핵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은 1950년 이후 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家門 대 個人的 가치

이 문제에는 2개의 문항이 해당되는데 첫 문항(#125)은 젊은이는 집안을 빛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집안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양자가 비슷한 정도로 중시되었는데 세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p < .001$) 50대는 양자를 비슷한 정도로 중시하는데 반해 20대는 집안의 명예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노력함(65%)을 보여 주었다. 학력수준의 효과($p < .001$)는 고학력층

이 자신을 위해 노력한다(73%)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번째 문항(#128)은 가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줄 알아야 하는지 또는 가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지 말고 개인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 전체는 가족이나 가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줄을 알아야 한다는 편을 약간 더 중히 여기는 경향(60%)을 보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는 세대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력수준의 효과는 유의하여($p < .05$) 학력이 낮을 수록, 특히 국민학교 학력 수준에서 가족이나 가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가치를 보였다.

이 두 문항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아직도 가족이나 가문을 위해 필요하면 자신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젊은 층에서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집안을 빛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상당히 퇴색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과 학력이 대학수준이상인 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했다. 대신 젊고 고학력을 지닌 층은 개인을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을 보였다.

가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기 보다는 개인적 발전을 생각해야 된다는 가치관(#128)은 1950년 부럽 이후 변동이 없는 것 같으나 젊은이가 성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가문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취때문이라는 생각(#125)은 지난 30년(1979년 기준) 강해져 왔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것은 유의한 세대차와 학력수준차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효과들이 나이 탓(자식을 다 클 때까지 키우고 교육시킨 50대는 자식의 성공에 대리적 만족을 맛보려해 본 경험이 있다)으로 그리고 높은 학력이 주는 사회적 지위의 영향(고학력자는 자신의 성취를 말할 기회가 있지만 저학력자는 그것이 없다)으로 각각 설명되므로 이들 효과가 전적으로 時代的變遷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더우기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時代的變遷이 있었다는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傳統的 風俗에 대한 가치

한 문항(#23)은 전통적 풍습이 현대문명을 위해 유용한 것인지 또는 무용지물인지를 물었다. 전반적 반응은 전통적 풍속이 유용하다는 것이었는데(79%), 이 문항에는 성차나 세대차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약한 학력수준차($p < .05$)만이 나타났다. 이 학력수준 효과를 보면 학력이 높을 수록 전통적 풍속이 유용하다고 보는 경향이었다. 時代的變遷은 없었던 것 같다.

힘 대 인간다움의 가치

다음에 다룰 문항은 간접적으로 힘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비교했다. 이 문항(#26)은 “세상 사람은 : (가) 강자와 약자로 갈라진다 ; (나) 인간다운 인간

과 인간답지 않은 인간으로 갈라진다”로서 응답자가 전자를 택하면 힘에 대한 가치를 인간다움의 가치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선택이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類目(category)이나 또는 신념(beliefs)만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체적으로는 힘보다 인간다움을 강조하는(73%) 것이었고 약한 세대 효과가 있어 50대가 20대보다 인간다움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p < .05$). 또 비교적 강한 학력수준효과도 나타났는데($p < .01$) 학력이 높을 수록 인간다움을 강조했다.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표집 전체로서는 뚜렷이 인간다움 쪽을 강조하는 경향(73%)을 보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경향이 특이함에 유의해야 한다. 가치가 “시대적”으로 변한다고 하면 특히 현대적인 방향으로 변한다고 가정하면 젊은 층의 가치와 고학력 층의 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나와야 한다. 이제까지 본 예는 대부분 그런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만은 그런 경향과 반대되는 경향이 나온 것이다. 즉 20대층이 50대층보다도 인간다움을 덜 강조한데 반해 고학력층은 저학력층보다 이를 더 강조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특이한 결과로 보아 이 문항에 나타난 세대차는 時代的變遷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심증을 굳힌다. 여기서 보인 세대차(50대가 20대보다 인간다움을 강조한 사실)는 가치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단지 나이의 효과(50대는 20대보다 더 원숙해서 인간다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20대는 50대보다 신체적인 힘에 자신이 있다)를 나타낼 수도 있다. 나이의 효과로서의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차만 가지고는 가치의 時代的變遷을 짐치기는 힘들다.

학력수준간의 차가 가치변동의 전파에서 예상되는 것과는 달리 나왔으므로 時代的變遷이 있었다는 해석은 더욱 근거가 희박해진다. 학력수준간에 나온 차이(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인간다움을 더 강조한 사실)는 학교교육이 가져다 준 가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이와는 달리 고학력이 가져다 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간접적 효과를 반영할 수도 있다. 후자의 설명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저학력층은 상황의 필요상 인간다움보다는 힘을 강조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얻어진 결과는 가치의 時代的變遷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설명은 왜 20대가 50대보다 힘을 더 강조했는지도 설명하는 잇점이 있다. 이 설명은 좌절을 많이 겪은 사람은 힘을 강조하게 된다는 명제(挫折-權力假說, the frustration-power seeking hypothesis) 위에 입각한 것이다.³⁾

註3. 좌절을 주는 사회적 상황이 근대에 올수록 증가했다는 가정을 하면 이 가설로 관찰된 세대차와 학력수준차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시대적 변천을 시사하는 듯 하나 자세히 보면 나이나 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위, 즉 상황의 차이에 호소하는 설명이 됨이 분명하다.

부, 벼슬, 명성, 및 인심

부, 벼슬, 명성, 및 인심을 다루는 문항은 모두 5 개가 있다. 첫 문항(#27)은 돈버는 것과 인심(인심을 잃지 않는 것)을 대비시켰는데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후자를 택했다(96%). 둘째 문항(#25)은 명성과 부(돈 많은 것)를 대비시켰는데 여기서는 명성이 압도적으로 선호되었다(87%). 셋째 문항(#28)에서는 높은 벼슬과 부를 대비시켰는데 여기서도 부보다는 높은 벼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73%). 네째 문항(#30)은 명성과 높은 벼슬을 대비시켰는데 여기서는 높은 벼슬보다 명성이 선호되었다(84%). 끝으로 다섯번째 문항(#29)은 자식의 직업선택이란 맥락에서 관리(벼슬)와 장사(부)를 대비시켰는데 관리가 우세했다(79%). 이들 비교의 결과를 잘 살펴보면(표 1), 이들 문항에 등장한 4 개의 가치의 서열은 대략 인심 > 명성 > 벼슬 > 돈이 된다. 인심은 돈과는 비교가 되었으나 다른 가치와 비교할 기회가 없어 정확히 가치서열상에 위치를 결정하기 힘들나 돈과의 대결에서 인심을 선택한 응답자의 백분율이 96%에 이른 것을 보아 인심이 명성(부와 대결해서 87%의 지지를 받음)보다 우위라고 판정을 내렸다.

이들 5 개 문항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세대차를 나타낸 것이 명성과 높은 벼슬을 비교한 문항(#30)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 20대는 50대보다 벼슬을 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5$), 그 내용을 보면 저학력층(국졸 이하 학력의 농촌거주자들)에서 50대가 상대적으로 명성에 비해 벼슬의 가치를 선호했기(32%)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대 $\times$ 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p < .001$)는 20대에서의 학력효과가 50대의 그것보다 오히려 작은 기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가치변화(벼슬가치의 하강)⁴⁾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아마 30년쯤 전에 시작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벼슬의 가치(하강했다고 여겨짐)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치들에게서는 서열이 지난 30여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한다. 벼슬의 서열은 약 30년전에는 명성을 능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차에 대해 언급해야 하겠다. 성차는 자식의 직업의 선택을 다룬 문항(#29)에만 나타났는데($p < .001$) 남자보다 여자가 장사보다는 관리를 더 선호하는(85%) 것이었다(남자의 관리선호율은 73%). 이 문항에서는 성차외에 다른 변인의 차이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註 4. 벼슬의 가치의 하강으로만 보고 명성의 가치의 상승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다른 문항(#28)에서 벼슬의 가치가 시대적 변천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학력수준주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의 가치

다음에 다루는 문항들은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나 정의 중요성을 다루는 것들로서 4개가 포함된다. 첫 문항(#106)은 사람이 믿고 살 것이 “자기 직장 동료나 친구들 뿐”인지 아니면 “인간대 인간의 이해심”인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88%가 후자를 택하여, 그들이 사람의 울타리 그 자체보다는 인간적인 이해심을 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물론 “인간대 인간의 이해심”이란 말이 더 듣기 좋은 표현이라 선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문항에서는 세대차는 없었으나 강한 학력수준차가 있었는데($p < .001$), 고학력일수록 “인간대 인간의 이해심”을 강조했다.

두번째 문항(#105)은 “유능하고 부지런한 실용적인 친구”와 “예술적이며 감정적인 친구”중 어느 편을 더 좋아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항은 응답자들의 실용성의 가치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83%) 실용적인 친구를 택했지만 강한 세대차가 있어서($p < .001$) 20대가 50대보다 실용적인 친구를 덜 선호하는 경향(젊은 층의 77% 대 나이든 층의 82%)을 보였다. 학력수준차도 있어서($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실용적인 친구를 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 문항(#133)은 “사람의 참행복”은 “인간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지 또는 “인간관계 밖에서”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문항에서만 성차가 있었는데($p < .05$) 남자보다 여자가 인간관계 안에서의 행복을 강조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반응은 74%가 인간관계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는 세대차나 학력수준차가 없었으므로 대체로 사람들은 정(情)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이며 마지막 문항(#134)은 처녀에게 신랑감이 들이 있는데 “정이 많고 부인을 아꼈만 하나 출세의 가망이 별로 없는 사람”과 “유능하고 출세의 가망은 많으나 인정이 별로 없는 사람” 중 어느 편을 권하겠느냐고 물었다. 전체 응답자는 전자에 기울었는데(76%), 남자가 여자보다 출세의 가망이 있는 신랑감(후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p < .054$). 세대차는 없었고 학력수준차도 없었다.

時代的變遷의 증거를 살펴보면 3개 문항(#104, #133, #134)에서는 가치의 時代的變遷을 짐칠 이유가 없다. 다만 문항 #105(실용적 친구와 예술적 친구)에서는 세대차와 학력수준차의 방향이 時代的變遷에서 예상하는 방향으로 나왔고 또 더구나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가 예상되는 형태(20대에서 학력효과가 크고 50대에서는 작다)로 나와 1950년 이후 예술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친구)에 대한 가치가(비록 전반적으로 “유능하고 부지런”한 실용적인 친구를 선호하지만) 약간씩 상승해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변

화는 특히 고학력층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능력의 가치

여기에서 다루는 문항들은 모두 능력에 대한 가치를 직접 간접으로 다룬다. 이런 문항은 모두 4개가 있다. 첫 문항(#101)은 “우리가 참으로 대우해 주어야 할 사람은” “아직 해놓은 일은 없어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능력은 어떻든 많은 중요한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인지”를 물었다. 응답자들의 전반적 반응은 대량 반반으로 갈라져 있었는데(능력소지자 지지가 45%), 약한 세대차가 있어서 50대가 20대보다 업적 소유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p < .05$)을 보였다. 두번째 문항(#115)은 내가 어느 직장의 장(고용주)이라면 새로 사람을 쓸 때 “일의 책임감은 좀 떨어져도 고분고분한 사람”을 쓰겠는지 “상사에게 건방지게 굴어도 자기 할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쓰겠는지를 물어보았다. 이 문항은 복종과 능력의 가치를 대치시킨 셈이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능력있는 사람(“자기 할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택하여 복종보다는 능력을 약간 더 선호함을 보였다. 여기에 약한 세대차($p < .05$)가 있었는데 20대가 50대보다 능력있는 직원을 더 강조했다. 또 커다란 학력수준의 효과가 있어서($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능력있는 직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문항(#115)에는 큰 성차가 있었는데($p < .001$) 여자보다 남자가 더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대체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성취지향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번째 문항(#117)은 직장에서 보수를 계산할 때 “직원의 능력본위”로 정할 것인지 “연령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81%가 능력본위로 보수를 결정할 것을 지지해 능력 내지 형평에 대한 가치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과 학력의 주효과도 없었고 이들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네번째이고 마지막 문항(#141)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전부터 잘 알고 지내지만 능력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좀 뒤떨어지는” 입후보자와 “다른 후보보다 유능한데 알지는 못하는” 입후보자 중 어느편에 표를 던질 것인가를 물었다. 응답자의 85%가 유능한 입후보자에게 표를 던진다고 했다. 능력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령차이는 없었고 약한 학력효과($p < .05$)가 있었는데 학력이 가장 높은 층(대학/대도시)이 낮은 학력층보다 유능한 후보를 선호하였다. 연령 $\times$ 성, 연령 $\times$ 학력, 그리고 性 $\times$ 학력 상호작용효과가 각각 5%수준에서 있었다.

時代的變遷에 관한 증거를 살펴 보면 세대차를 보인 것은 업적과 능력을 대비시킨 문항(#101)과 복종과 능력을 대비시킨 문항(#115) 뿐이었는데 전자

의 경우 50대가 능력보다 업적을 선호한 것은 50대가 업적을 지닌대 반해 20대는 어려서 업적은 별로 지닌 것이 없으므로 생긴 결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즉 가치변화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가져다 준 상황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대적 변천을 추리할 근거가 약하다. 더우기 학력수준의 효과도 없으므로 時代的變遷을 추리하기는 어렵다. 후자의 경우(#115)에는 얻은 세대차(50대가 고분고분한 직원을 더 선호한다)가 나이탓으로 설명이 되므로 시대적변천을 짐치기는 힘들지만 학력수준의 주효과와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p < .001$ 과 $p < .002$)하므로 그리고 학력의 효과의 경우 방향이 가치의 전파에서 예상되는 것(고학력이 능력있는 직원을 선호)이므로 시대적 가치변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20대에서는 학력수준차가 별로 크지 않으나 50대에는 학력수준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가치의 시대적변천이 꽤 오래전에 시작되었던 것이라 추측케 만든다. 능력을 다룬 다른 문항에서 능력의 가치의 시대적변천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문항 115에 나타난 변화는 복종(순종)의 가치의 후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 변화가 능력의 가치의 상승이 아니고 복종의 가치의 후퇴를 나타낸다는 또 다른 증거는 뒤에서 다룬, 순종의 가치를 직접 다룬 문항(#148)에 나온다.

친분과 능력을 대비시킨 문항(#141)은 세대차는 보이지 않으나 학력차와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시대적변천이 추리된다. 이 경우 친분의 가치의 하락이나 또는 능력의 가치의 상승 또는 양자일 수 있다. 세대차가 안 나온 것은 50대가 이미 가치변화를 겪은 뒤이기 때문일 수 있다. 여러 문항(#105, #115, #101, #141)의 결과는 함께(표1 참조) 능력의 가치가 상승했음을 가리킨다.

근로에 대한 가치

앞에서 본 능력에 관한 문항들은 간접적으로 근로의 가치를 다루는 것이나 보다 직접적으로 근로의 가치를 묻은 문항(#116)이 있었다. 이 문항은 세상 살이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인생의 재미를 모르는 것” 인지 아니면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선자는 근로를, 후자는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선지이다. 응답자의 86%가 “근로” 쪽을 택하여 전반적으로 근로의 가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큰 연령차가 있어서($p < .001$) 20대가 50대보다 안일한 생활을 선호하였다. 또 학력수준의 차이도 유의했는데($p < .001$) 이 경우 고학력층이 젊은 층(20대)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다. 즉 학력이 높은 층이 근로의 가치를 나타내고 낮은 층은 安逸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세대차가 가리키는 바로는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젊은 층에서 심한 후퇴를 보이고 있는데 요새처럼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바쁘게 움직이는 속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이 50대보다도 근로를 덜 강조했다는 사실은 생활상황의 차이로는 좀체로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치의 時代的變遷을 가리키는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무리를 가해서 상황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즉 50대가 20대보다 실제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결혼한 오늘날의 20대가 50대보다 일을 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근로의 가치가 1950년대에 후퇴했다고 해석해야 한다.

만일 세대차를 근로의 가치의 시대적변천으로 보게 되면 학력수준의 차가 왜 얻은 결과와 같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이 학력수준차는 시대변천이 예상하는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나왔다(이와 비슷한 결과는 문항 26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학력수준의 차이는 가치의 시대적변천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고학력층은 많은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 그곳에 도달했고 저학력층은 노력을 기피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저학력층은 농촌거주로 일 자체가 육체노동이고 고학력층의 일은 정신노동이다. 이와 같은 일의 성질의 차이와 또 일에 대한 각 계층의 태도의 차이가 여기서 얻은 결과를 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문항(# 116)에서의 세대차는 젊은층에서의 근로의 가치의 후퇴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깨끗한 인생 대 풍부한 인생

다음 문항(# 106)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인생을 실수없이 깨끗이 옮겨 사는 것”인지 “인생을 실수 좀 하더라도 풍부하게 사는 것”인지를 물어 보았다. 이것은 동양적인 생활스타일과 서양식 스타일을 대비시킨 것이다. 전자는 “올바름과 깨끗함”의 가치를 나타내고 후자는 “경험”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가 “깨끗한 인생”을 택하여 아직도 다수의 사람들이 동양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세대차가 있었는데 20대가 50대보다도 “풍부한 인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 고학력 층으로 갈수록 더 “풍부한 인생”을 선호하였다($p < .001$). 이 두 결과는 풍부한 인생이란 경험의 가치를 나타내는 서구식 인생관측으로의 가치변동이 있음을 나타낸다. 연령×학력수준 상호작용도 있었는데($p < .001$), 그 내용을 보면 50대에서 보다 20대에서 학력수준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그리고 고학력/대도시 층에서 20대와 50대의 가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 차이는 주로 20대중 고학력(대학학력)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풍부한 인생”을 강조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이

층에서 “풍부한 인생”을 택한 백분율은 71%인데 50대에 속하는 고학력(대학학력) 층의 백분율은 고작 21%에 불과했다(다른 층들의 백분율은 24~34%이었다). 따라서 이 문항에 관한 한 비교적 확신있게 “풍부한 인생”쪽으로의 가치변동이 있으며 이 가치변동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리(義理)에 대한 가치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나를 칠 것인지 “필요하면 의리에 억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나를 칠 것인지를 물어 본 문항(#135)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가 “의리있는 사람”을 택했다. 따라서 의리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차나 성차는 발견되지 않고 약한 학력차가 보였는데 중정도의 학력층(서울거주)이 다른 학력수준층보다 가장 “의리에 억매이지 않는 사람”을 지지했다($p < .05$). 이 문항에서는 상호작용효과도 없었으므로 이 가치의 시대적변천이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시비의 가치와 묵인의 가치

여기서 다루는 가치는 Rokeach(1973)가 말하는 전형적인 도구적 가치의 하나이다. 여기서 다루는 문항(#137)은 현대인이 갖추어야 속성으로 “이치에 밝아 사리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서슴치 않는” 것과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포용력있게 처신하여 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41%가 “시비를 가리는 것”을 택하여 아직도 포용력있게 처신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반수 이상임을 나타냈다. 세대차도 있어서 50대가 20대보다 포용력을 더 강조했다($p < .01$). 그런데 학력수준의 주효과는 없고 다만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p < .017$) 20대에서 저학력으로 갈수록 시비를 따지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형태로 나왔다. 또 앞에서 본 세대차가 저학력에서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이었다. 학력의 주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방향도 시대적 가치변동에서 예상되는 것과 반대방향이므로 세대차가 가치변동을 가리킨다는 가설을 의심하게 된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세대차의 방향 자체도 가치변동이 아닌 다른 설명이 가능함을 알게 된다. 이 대안적 설명은 50대가 성숙한 탓으로 포용성있게 처신하는 지혜를 터득했다는 것이다. 이런 나이탓에 의한 설명이 그럴듯하므로 가치의 시대적변천이 있었다는 가설은 부인해도 좋을 것이다. 상호작용효과에서 본 농촌의 20대(저학력층)가 더 시비를 중요시하는 것도 그들의 생활상황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依存의 가치

이 가치를 다루는 문항(#147)은 “나는 일을 할 때”는 “혼자 계획하고 혼자 하려는 경향이 있다”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얻어 보려고 한다”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게 했다. 전체 응답자의 53%만이 “혼자 한다” 쪽을 택했는데 이로 보아 아직도 남의 도움을 얻으려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서는 성, 세대, 그리고 학력수준의 주요효과 전혀 나오지 않고 단지 약한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만이 있었는데($p<.05$) 50대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20대에서는 중정도의 학력층에서 가장 높은 의존경향을 보였다. 이 가치에서는 필요한 주요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의존의 가치의 시대적변천이 있었다고 믿을 근거가 전혀 없다.

順從의 가치

이 가치를 다루는 문항(#148)은 “나는 직장이고 어디고간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일은 하기 싫다”와 “아무 일을 안 시키는 것 보다는 시키면 일하기가 쉽다” 중 어느 쪽인지를 택하게 했다. 응답자의 56%가 “시키는 것은 하기 싫다” 쪽을 택했는데 이 문항에서는 큰 세대차가 나타났다. 50대보다 20대가 “시키는 것은 하기 싫다”라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p<.001$). 학력수준의 차도 있어서 고학력층이 다른 두 학력층보다 월등히 시키는 일은 하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했는데($p<.001$) 20대에서는 50대에서 보다 학력수준의 효과가(가치변천에 예상되는 대로) 더 컸으나 중정도의 학력층이 다른 학력층보다 더 시키는 일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고 50대에서는 저학력층이 이런 경향을 가장 많이 보였다. 상호작용효과의 내용은 좀 복잡하나 세대차의 방향과 학력수준차의 방향은 이 가치가 時代的變遷을 겪고 있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젊은 층에서 권위주의적 태도가 쇠퇴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順從의 가치가 지난 30여년간의 기간 동안에 후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順從의 가치는 앞에서 본 “고분고분한 직원”과 “능력있는 직원”을 비교한 문항(#115)에서도 다루어졌으나 능력의 가치와 짝지어져서 順從의 가치 자체의 평가는 할 수가 없었다. 현재의 문항(#148)의 결과에 비추어 먼저의 문항(#115)의 결과는 전적으로 순종의 가치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自我實現의 가치

여기서 다루는 가치는 나대로 사는 것의 가치이다. 이 가치를 다룬 문항(#149)은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와 “주

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 중 하나를 택하도록 요구했다. 응답자의 82%가 “나대로 산다”를 택하여 전반적으로 自我實現의 삶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어떤 주효과도 나오지 않았고 오직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만이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하였다($p < .053$). 이에 의하면 50대에서는 저학력일수록 自我實現의 가치가 약해지나 20대에서는 중정도의 학력수준이 다른 두 수준보다 自我實現의 가치가 낮았다. 왜 국졸에서 중졸의 학력을 가진 서울에 사는 20대가 다른 학력수준의 20대보다 他人指向的인 가치관을 보이는지는 이 결과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아들과 딸의 가치

두개의 문항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한 문항(#33)은 가문을 이을 사람이 “꼭 아들이라야” 하는지 또는 “아들, 딸이건 자식만 있으면” 되는지를 물었다.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2%로서 가문을 잇는 사람으로서 아들의 가치는 이제는 절대적이 아님을 보여준다. 세대차가 있어서 ($p < .001$) 20대가 50대보다 “아들, 딸 누구나”라고 좋다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68% 대 48%). 학력수준의 주효과도 있어서($p < .05$) 고학력일수록 “아들, 딸 누구나”라는 입장을 취했다.

두번째 문항(#66)은 가계계승과는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남아가치를 알아 보았다. 이 문항은 집에 아이가 셋이 있다면 “아들만 셋”과 “딸만 셋” 중 어느 쪽을 바라는지를 물었다. “아들만 셋”을 택한 것은 전체 응답자의 84%로 남아선호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도 세대차가 있었는데($p < .001$) 앞서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50대가 20대보다도 남아가치가 높았다. 놀랍게도 학력의 주효과는 없었다. 앞서의 문항(#33)에서도 학력수준의 주효과는 미미했었다. 이런 결과는 남아선호와 학력수준간의 負的相關關係를 보고한 여러 연구결과(예 : 車載浩·鄭範謨·李星珍, 1975; Lee, H.-T., 1982)와 상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의적으로 학력과 거주지를 병합했기 때문에(가치, 태도, 또는 신념의 變散을 최대한도로 흡수하기 위해서) 오히려 “학력”의 주효과가 과장되어 나와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학력수준과 남아선호간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대개 학력변인이 거주지(도시, 농촌) 변인과 혼합되어 있다(예 : 車·鄭·李, 1975; Lee, 1982). 본 연구의 설계는 이런 혼합을 체계적으로 했다. 이와 같이 연구상황이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학력과 남아선호간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온 이유로는 본 연구에서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력의 효과를 보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다. 무선표집을 사용하는 연구들에서는 고학력자가 젊은 층이 되기 쉽다. 즉, 학력변인이 연령변인에 의해 오염(confounding)이 되어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오염때문에 다른 연구에서는 학력과 남아선호간에 역상관이 나왔으나 연령을 통제한 본 연구에서는 안 나오거나 약한 역상관만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분석은 과거의 “학력”과 남아선호간의 역상관의 발견은 주로 연령과 남아선호의 역상관관계때문에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時代的變遷의 증거를 살펴보면 가문을 이을 사람이란 맥락에서 아들가치와 딸가치를 본 문항(#33)에서는 세대차의 방향과 학력차의 방향이 時代的變遷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또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는데($p < .05$) 그 내용을 보면 20대에서는 학력차가 크지 않으나 50대에서는 학력차가 큰(주로 저학력층에서 아들선호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65%) 그런 형태이었다. 이것은 가치변화(남아선호의 약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두번째 문항(#66)에서는 큰 세대차만 있고 학력수준의 주효과나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다. 세대차의 방향은 물론 젊은 층이 나이든 층에 비해 남자의 가치를 덜 인정한다는 것인데 젊은 층이 나이든 층에 비해 그렇게 해야 할 생활상향상의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세대차는 가치의 時代的變遷을 나타낸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두 남아선호에 관한 문항들은 모두 남아선호가 1950년 이후 일찍부터 약화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결론은 남아선호가 줄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다른 연구들(Cha, 1979 ; Lee, 198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남아선호의 약화가 남아가치의 후퇴에서 온 것인지 또는 여아가치의 상승에서 온 것인지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한 것인지는 따로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이들 두 문항에서는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이외에 다른 상호작용효과들도 나타났다. 가세제승과 관련해서 남아존중을 다룬 문항(#33)에서는 세대×성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는데($p < .002$) 이에 의하면 20대에서는 여자 응답자가 남자보다 남아선호를 덜 보이나 50대에서는 오히려 여자 응답자가 남자보다 더 남아선호를 보인다. 일반적인 남아선호를 본 문항(#66)에서는 성×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p < .013$)와 세대×성×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p < .032$)가 있었는데 전자는 고학력층에서 특히 남자와 여자의 남아선호태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현상(남자는 강한 남아선호, 여자는 약한 남아선호) 때문에 생긴 것이며 후자는 50대 남자 중 저학력층이 특히 강한 남아선호를 보이고 20대 여자 중 고학력층이 특히 낮은 남아선호를 보이는 현상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남아선호를 보였는데($p < .032$) 이런 성차는 거의 전적으로 50대에서 있는 성차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20대에는 남아선호가치에 있어 성차가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20대에도 남아선호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子女價值

다음 두 문항들은 아이에서 부모가 찾는 가치, 즉 子女價値를 다룬다. 첫 문항(#31)은 가계계승과 기르는 재미/화목한 가정이란 두 가치를 대치시킨 것이다. 응답자들은 자식을 두는 이유로서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자식 기르는 재미를 보고 화목한 가정을 맛보기 위해”라는 이유중 하나를 택하였는데 응답자의 41%가 “대를 이을 사람” 쪽을 택했다. 세대차가 있어서($p < .001$) 50대가 20대보다 가계계승을 더 강조했고 학력차도 있어서($p < .001$) 고학력일수록 가계계승을 덜 강조했다.

둘째 문항(#32)은 부부가 아이를 낳을때 “가문을 잇기 위해 아이를 두는 것”인지 “가문을 잇기 위해 낳는 것은 아니다”인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45%가 가계계승을 위해 낳는다는 답을 하여 가계계승의 가치가 아직도 자녀가치로서 건재함을 보여 주었다. 이 문항에도 세대차가 있어서($p < .001$) 50대가 20대보다 가계계승의 가치를 더 강조했다. 큰 학력수준차도 있었는데($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계승의 가치를 덜 강조했다.

子女價値의 時代的變遷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자료를 살펴보면 첫 문항(#31)의 경우 가치의 시대적변천이 있다는 것이 세대와 학력수준의 주효과에서 드러난다. 더우기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까지 있었는데($p < .001$) 20대에서 보다는 50대에서 학력수준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상호작용 효과는 저학력층에서 세대간의 가치차이를 확대시켜 놓는 결과를 낳는다(그래서 저학력층의 50대가 가장 “대를 잇는 것”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런 상호작용효과의 형태는 가치변동이 시작된지가 오래 되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 자료만으로는 이 가치변동이 가계계승의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르는 재미/가정의 화목의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는지를 가릴 수가 없다. 그러나 1970년경에 “행복한 가정”과 “기르는 재미”라는 두개의 새로운 子女價値가 등장했다는 별도의 증거가 있다(Cha, 1979). 둘째 문항(#32)은 두 선지가 가계계승만을 다루고 있어 가계계승의 가치가 과연 하락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뚜렷한 세대차와 학력차, 그리고 그들의 주효과의 방향이 이 가치에 시대적변천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또 뚜렷한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도 있어서($p < .001$) 이 결론을 더 뒷받침한다. 상호작용의 내용을 보면 20대에서 보다는 50대에 학력수준의 효과가 약간 크게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이런 형태는 자녀가치로서의 家系繼承의 가치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는 아닌 시점부터 쇠퇴해오고 있음을 암시한다. 별도의 증거에는 가계계승의 자녀가치가 1970년대 중반까지 크게 후퇴하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있다(Cha,

1979).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이 가치도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돈의 가치

돈과 다른 몇개 가치와의 상대적 중요성은 앞에서 다루었다. 여기서는 돈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알아 보기로 한다. 세계의 문항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첫째 문항(#12)은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68%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는데 세대차가 있어서($p < .01$) 50대가 20대보다도 돈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였다(73% 대 63%). 이 문항에서는 학력차도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둘째 문항(#13)은 돈이 많은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말”인지 또는 “행복하겠지만 불행의 씨를 안고 있다는 말”인지를 물었다. 이 문항은 돈에 대한 생각 내지 신념을 다루고 있고 간접적으로 돈의 가치를 다룬다. 응답자의 이에 대한 반응은 반반으로 갈라졌다. 이 문항에서는 세대, 학력수준, 그리고 성의 주효과는 모두 나오지 않았고 오직 오직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 효과만이 나왔다($p < .006$). 이 효과에 의하면 20대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돈을 좋게 보는데 반해서 50대에서는 학력이 좋을수록 돈을 반드시 좋게만 보지 않는다. 그래서 고학력층에서는 20대와 50대 사이에 커다란 가치의 격차가 벌어졌다(50대에 비해 20대는 돈을 축복으로 생각한다). 한편 저학력층에서는 꺼꾸로 20대보다 50대가 돈을 더 중요시했다. 세번째 문항(#14)은 돈은 “천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64%가 “귀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문항도 직접적으로 응답자의 개인적인 돈에 대한 가치를 묻고 있지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세대차가 나왔는데($p < .01$) 20대보다 50대가 돈의 귀함을 더 인정했다(59% 대 70%). 이 문항에서는 학력수준의 주효과는 없었고 다만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p < .05$) 이에 의하면 20대에서는 학력차가 컸으나(학력이 높을수록 돈의 가치를 인정) 50대에서는 학력차가 거의 없었다. 이런 결과로 보아 20대는 돈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지 않는 반면 50대는 비교적 돈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하나의 가치로서는 그리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돈의 가치에 관한 한 학력수준간의 차이는 20대에서나 나타나며 학력이 높을수록 돈의 가치는 커진다.

돈의 가치의 時代的變遷의 유무를 보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살펴보면 두 문항(#12와 #14)에서 그리 크지 않은 세대차가 있어 돈의 가치가 차차 약화되어 왔을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이 세대차는 나이에 따른 생활환경의 차이로 설명이

되므로(나이는 층이 여러가지 이유로 돈의 필요를 더 느낀다) 가치의 時代的變遷의 결정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 더우기 셋째 문항(#14)에서는 20대에 보인 학력수준의 효과가 고학력일수록 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20대가 50대보다 돈의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20대나 고학력층이나 돈의 경시라는 세 풍조의 지원지로서 다같이 돈을 경시해야 된다는 가정에 비추어 하는 말이다. 두번째 문항(#13)에 보인 결과에서도 20대에서 고학력일수록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는 세대차나 학력수준의 주효과가 없다. 첫 문항(#12)에서는 세대차는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학력수준의 주효과와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학력수준의 주효과는 어느 문항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모든 증거로 보아 세대차 자체는 돈의 가치의 변동(돈의 경시풍조가 진행되고 있다는)의 증거로 볼 수 없다. 결국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만이 남는데 이것은 반대로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時代的變遷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동추세가 있다 해도 20대에 국한된 극히 초기적인 것일 것이며, 어쩌면 전혀 돈의 가치의 변동이 없을 가능성도 높다. 저학력층에는 20대가 50대에 비해 돈을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세대간의 상황적 차이를 반영하고 시대적변천과는 무관한 차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오히려 돈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나온 여러 증거로 보아 1950년 무렵부터 이 조사가 실시된 1979년까지의 사이에 돈의 가치는 별다른 변동을 겪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다.

1970년대에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다른 연구들의 증거가 있다. 李勳求(1980)은 1971년과 1980년 사이에 기혼부인들의 돈의 가치가 하강했다고 하는데 80년도의 응답자가 71년도의 응답자보다 거의 7세나 나이가 많아 생활안정이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돈벌이는 그저 먹고 있을 정도면 된다”) 그런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車, 1985).

年長者の 존중

3개의 문항이 年長의 가치를 다루었다. 첫째 문항(#45)는 직접적으로는 禮의 개념을 다룬 것인데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이 “어른을 존경할 줄 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53%가 “어른 존경” 쪽을 택하여 어른을 존경하는 것이 예의의 일부로 보는 생각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p < .001$) 50대가 20대보다 “어른 존경”이란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학력의 주효과도 컸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권리의 존중”이란 쪽을 택하였다.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타났다(이 효과의 내용

은 뒤에 곧 다시 다룰 것이다). 두번째 문항(#46)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은 “남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36%만이 “나이 많은 사람”을 택하여 능력의 가치에 대해서 年長의 가치가 열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성차가 있었는데($p < .01$)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을 중시했다 세대차는 없었으나 학력수준의 주효과는 크게 나타났다($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능력을 중시하고 나이를 경시했다.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다($p < .001$). 이 문항에서는 성×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했는데($p < .019$), 중학력층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을 월등히 중요시(또는 나이 많은 것을 경시)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다른 두 학력층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이것이 왜 나오는지 잘 알 길이 없다. 세대×성×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는데($p < .037$) 이 3元的 상호작용효과는 20대의 저학력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나이를 존중하는데 50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아마도 50대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成就指向的이었는데 20대에서는 여자가 더 성취지향적(특히 저학력층에서)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이것은 농촌의 성취동기가 높은 남자가 대도시로 이주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문항(#43)은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항상 존대하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와 “예의 바르게 굴되 나이 어린 사람보다 특별히 더 존대하거나 경의를 표할 필요는 없다” 중 한쪽을 택하게 했다. 응답자의 77%가 “존대해야”쪽을 택하여 年長의 가치가 상당히 건재함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앞의 두 문항(#45와 #46)에서는 年長의 가치 자체를 알 길이 없었다. 왜냐 하면 年長의 가치와 다른 가치와 상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항에서는 오직 세대차만이 유의했는데($p < .01$) 50대가 20대보다 年長者에 대한 존재를 더 지지했다.

時代的變遷에 관한 증거를 살펴 보면, 첫 문항(#45)의 결과들은 예의의 개념이 어른존경에서 개인권리존중이란 방향으로 시대적변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대와 학력의 주효과, 그리고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이 해석을 지지한다. 이 상호작용효과는 20대에서는 고학력층이 유난히 개인권리존중을 강조하고 50대에서는 저학력층이 어른존경을 강조함으로써 나온 것이다. 전자는 가치변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층이고 후자는 가치변동을 가장 늦게 보이는 층이므로 가치의 시대적변천이 있다는 해석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 가치변동이 年長의 가치의 쇠퇴인지 개인권리의 가치의 상승인지 또는 양자인지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다. 최근의 개관(車, 1985)에 의하면 70년대 말에 적어도 청소년 사이에는 어른이나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항(#45)이 보이는 가치변동은 개인권리의 가치의 상승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문항(#46)은 능력과 나이를 대비시켰는데 세대차가 없고 다만 학력수준의 주효과(학력이 높을수록 능력 중시)와 세대×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20대의 고학력층이 능력을 가장 중시하고 50대의 저학력층이 나이를 가장 중시한다)가 있었는데 이 두 효과들은 생활상황의 차이로 설명이 되므로 이 문항에 관한 한 가치의 時代的變遷을 점칠 근거는 희박하다. 마지막 문항(#43)은 연장자에 대한 존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세대의 주효과(50대가 20대보다도 연장자에 대한 존대를 지지)만이 나왔는데 이 결과는 두 세대의 생활상황의 차이로 설명이 되므로 가치의 시대적 변동을 의미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만일 가치의 시대적변천이 있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면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이 감퇴해왔다고 해석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결론은 직관적인 타당성을 갖는 것이나 객관적 기준은 이런 결론을 내릴 근거가 희박함을 가리키고 있다. 만일 연장자에 대한 가치의 후퇴가 없었다면 첫 문항에서 시사된 가치변동은 개인권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들 3개 문항은 근래 연장에 대한 가치가 후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나 확실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개인의 권리의 가치가 상승했을 공산이 크다. 그런데 개인권리의 존중이란 생각은 근본적으로 권위의 일종인 年長의 존중이란 생각과 상치되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지난 30여년 사이에 실제로 쇠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貞操의 가치

여기서는 여자의 貞操의 가치를 다룬 3개의 문항에서 얻은 결과를 살펴 본다. 첫 문항(#70)은 기혼부인이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정조를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꼭 貞操를 지킬 필요는 없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95%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대차가 있었는데($p < .01$) 20대가 50대보다 기혼부인의 정조를 덜 강조하였다. 다른 효과들은 일체 나타나지 않았다. 두번째 문항(#71)은 처녀가 결혼할 때까지 정조를 지켜야 하는지 아닌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88%가 정조를 지지했는데 세대의 주효과($p < .001$)는 20대가 50대보다 처녀의 정조를 덜 중요시(81% 대 95%)함을 나타냈다. 다른 효과들은 없었다. 셋째 문항(#72)은 남편의 사후에 부인이 정조를 지켜야 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50%만이 정조를 지지하여 이 경우는 貞操에 대해 관대함을 보였다. 성차($p < .01$)가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과부의 정조에 대해 관대했고, 세대차($p < .001$)는 20대가 50대보다 과부의 정조에 대해 더 관대함을 보였다. 또 고학력일수록 과부의 정조에 관대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는데($p < .028$) 20대의 고학력

층이 특히 과부의 정조에 관대하였고(24%만이 정조 지지) 50대의 저학력층이 가장 과부의 정조에 엄했다(66%가 정조 지지).

貞操의 가치의 時代的變遷의 유무를 보면 기혼부인의 정조의 경우 비록 세대차가 있으나(50대가 정조 더 강조) 50대의 생활상황이 부인 不貞으로 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貞操가치의 후퇴라는 시대적변천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처녀의 정조의 경우 비교적 큰 세대차가 나왔는데(50대가 20대보다 정조를 강조) 50대가 장성한 딸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처녀의 정조를 강조해야 할 생활상황적 이유가 있으므로 여기서도 세대차를 처녀의 貞操의 가치의 후퇴라는 시대적변천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나이탓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둘과는 달리 과부의 정조의 가치의 경우 세대차도 있고 학력수준차도 나왔고 또 이를 주효과의 방향이나 유의하게 나온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의 방향에 비추어 과부의 정조가치의 약화라는 방향으로 정조가치의 時代的變遷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과거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

마지막 남은 문항(#99)은 응답자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문항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셋 중 어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미래를 버리고 과거와 현재”를 택할 것인지 “과거를 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택할 것인지를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후자를 선택하여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였다. 미래지향적 가치관은 근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Kluckhohn & Strodtbeck, 1961). 성차가 있었는데($p < .01$)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미래를 더 선호하였다. 이 성차는 주로 20대에 나타난 성차에 의해 생긴 것이다. 세대의 주효과는 없었고 그 대신 학력수준 주효과가 있었다(고학력일수록 미래 선호). 세대×학력수준 상호작용효과($p < .001$)는 주로 50대의 저학력층만이 다른 집단보다 유난히 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다른 집단들에서는 “현재/미래”의 선택율이 87~97%였는데 이 집단에서는 75%에 불과했다.

미래에 대한 선호가 時代的變遷을 겪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세대차가 없었으므로 우선 時代的變遷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저학력층(농촌거주)에서만 20대와 50대의 차이가 다른 층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 점(20대가 50대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아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오래전에 뿌리 박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50대가 20대보다도 덜 미래 선호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은 20대가 최근에 덜 미래선호적으로 변했을 가능성도 떠올린다. 50대의 중학력과 고학력수준층의 미래선호가 20대의 그것보다 오히려 높게 나오는 추세(표1 참조)는

이런 추측을 강화시켜준다.

이제까지 살핀 분석결과를 (1) 1979년 당시 응답자들이 보이는 가치관과 (2) 이 자료에서 추리되는 여러 가치들의 시대적 변동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價値觀의 現在

가. 세대차를 보이지 않는 가치들

다음에 드는 가치들은 20대와 50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문항이 다룬 가치들의 위치이다. 이들 가치에 대해서는 世代的 葛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1) 사람은 부모의 은공을 알고 갚을 줄 알아야 한다(# 24).
- (2) 남편/자식을 위하는 것과 시부모(며느리가) 위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없다(# 128).
- (3) 자기 가족이나 가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줄 알아야 한다(# 128).
- (4) 전통적 풍습은 오늘날에도 문명위기 극복의 열쇠로서 쓸모가 있다(# 23).
- (5) 돈은 못 벌더라도 인심은 잃지 말아야 한다(# 27).
- (6) 돈 많은 것보다는 높은 벼슬이 더 좋다(# 28).
- (7) 돈 많은 것보다 업적으로 이름 떨치는 것(명성)이 더 중요하다(# 25).
- (8) 자식의 직업으로는 장사보다는 관리가 낫다(# 29).
- (9) 사람의 참행복은 인간관계의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찾을 수 있다(# 133).
- (10) 신랑감으로는 능력이나 출세 유망성보다는 정있고 부인 아꼈을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134).
- (11) 믿고 살 것은 직장 동료나 친구가 아니라 인간대 인간의 이해심이다(# 104).
- (12) 직장의 보수는 연령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정해야 한다(# 117).
- (13) 선거에서는 잘 아는 입후보자보다는 유능한 입후보자에 투표하겠다(# 141).
- (14)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135).
- (15) 일 할 때 남의 도움을 얻고 싶기도 하나 혼자 해보려 한다(# 147).
- (16) 남이 좋다는 식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다(# 149).
- (17)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 해서 좋지만 불행의 씨도 된다(# 13).
- (18) 존경할 것은 나이가 아니라 능력이다(# 46).
- (19) 과거보다는 미래를 갖겠다(# 99).
- (20) 인심은 명성보다, 명성은 벼슬보다, 벼슬은 부모보다 중하다(# 25, # 27,

나. 세대차가 있는 가치들

다음에 드는 것은 20대와 50대 사이에 유의한 차가 있는 가치들의 위치이다. 세대차가 있으므로 세대간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다. 세대차의 유의도가 $p < .001$ 수준인 것은 “분명히”라는 부사를 삽입하였다.

- (1) 50대는 나라와 부모를 비슷한 정도로 중히 여기나 20대는 나라보다 부모를 더 중시한다(# 21).
- (2) 충효사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나 50대의 것보다 20대의 충효가치는 분명히 약하다(# 151).
- (3) 나라를 자신/가족보다 떠 받들어야 한다고 모두 생각하나 50대에 비해 20대의 나라가치는 분명히 더 낮다(# 22).
- (4) 나라와 가족의 우선순위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나 50대는 나라를 약간 더 앞세우는 반면 20대는 분명히 가족이 우선한다고 본다(# 20).
- (5) 필요하면 부모보다는 자식을 먼저 희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나 50대보다 20대가 더 이런 생각을 지닌다(# 34).
- (6) 젊은이는 집안의 명예보다는 자신을 위해 성공할 것이나 50대보다 20대가 분명히 더 자신을 강조한다(# 125).
- (7) 세상사람들은 강자와 약자로서 보다는 인간다운 자와 인간답지 못한 자로 갈라진다고 믿는데 50대보다 20대가 더 인간다움을 강조한다(# 26).
- (8) 응답자들은 벼슬보다는 명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50대보다는 20대가 특히 그렇다(# 30).
- (9) 친구로는 예술적/감정적인 사람보다는 실용적인 사람이 낫다고 보나 50대에 비해 20대는 분명히 이와 같은 편향이 덜 심하다(# 105).
- (10) 직장에 사람을 쓴다면 복종을 잘 하는 사람보다는 능력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나 50대보다는 20대가 능력을 더 중시한다(# 115).
- (11) 사람은 능력보다는 업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간 강하나 50대에 비해 20대는 업적을 덜 강조한다(# 101).
- (12) 전체적으로 풍부한 인생(서구식인생관)보다는 깨끗한 인생(동양적 인생관)을 선호하나 50대에 비해 20대는 분명히 풍부한 인생도 좋아 한다(#106).
- (13) 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인생의 재미라고 여기고 있으나 50대에 비해 20대는 분명히 일하지 않는 것도 재미로 생각한다(# 116).
- (14)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덮어두는 포용력 있는 처세술이라 생각하나 50대에 비해 20대는 시비를 가리기를 덜 나쁘게 생각한다(# 137).

- (15) 남이 시키는 일은 싫어 하는 편인데 50대에 비해 20대는 분명히 더 시키는 일을 하기 싫어한다(#148).
- (16) 가문을 이을 아이는 꼭 아들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꼭 아들이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우세하나 50대에 비해 20대는 분명히 꼭 아들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33).
- (17) 응답자는 남아선호를 하나 50대에 비해 20대에서는 분명히 남아선호가 약하다(#66).
- (18) 아이를 두는 이유로는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함보다는 기르는 재미때문이라는 생각이 약간 더 우세하나 50대에 비해 20대는 분명히 기르는 재미를 강조한다(#31).
- (19) 아이를 낳는 이유는 가문을 잇게 함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나 50대에 비해 20대는 분명히 더 가문을 잇는 것의 중요성을 덜 인정한다(#32).
- (20) 돈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고 귀하다고 생각하나 50대에 비해 20대는 이런 생각이 덜 강하다(#12, #14).
- (21) 예의 바르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의 존중이라기 보다는 어른의 존경이라고 보는 생각이 약간 더 지배적이나 50대에 비해 20대는 분명히 개인권리의 존중을 더 강조한다(#45).
- (22) 연장(年長)자에 대해서 존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나 50대에 비해 20대는 이런 생각이 더 약하다(#43).
- (23) 기혼부인이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적인데 50대에 비해 20대는 이런 생각이 약하다(#70).
- (24) 처녀는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나 50대에 비해 20대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약하다(#71).
- (25) 과부는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반반이나 50대에 비해 20대는 정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72).

이상에서 본 “가치관의 현재”는 1979년 현재의 한국인의 가치관의 일부 내용이다. 이와 같은 요약은 격변하는 사회인 현재 우리나라의 한 시점에서의 가치관을 기록해 둔다는 의미가 있다. 다음은 각 가치에 대해 시대적 변천의 유무에 관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해 본다.

(2) 價値의 連續과 變化

여기서는 문항별로 결과를 요약하는 대신 가치유목별로 결과를 요약하기로 한다.

가. 변하지 않은 價値들

- (1) 부모와 자식의 상대적 가치(# 24, # 34).
- (2) 가문을 위한 자기희생과 개인발전의 상대적 가치(# 128).
- (3) 전통적 풍습의 가치(# 23).
- (4) 힘과 인간다움의 상대적 가치(# 26).
- (5) 정 또는 인간관계의 가치(# 104, # 133, # 134).
- (6) 인심, 명성 및 돈의 가치(# 25, # 27, # 28, # 29).
- (7) 인심이 명성보다, 명성은 벼슬보다, 벼슬은 돈보다 중하다는 생각(가치서열). (# 25, # 27, # 28, # 29, # 30).
- (8) 의리의 가치(# 135).
- (9) 시비가리는 것과 눈감아 두는 것의 상대적 가치(# 137).
- (10) 의존의 가치(# 147).
- (11) 자아실현의 가치(# 149).
- (12) 능력과 나이의 상대적 가치(# 46, # 117).
- (13) 연장자에 대한 존대/경의표시의 가치(# 43).
- (14) 유부녀와 처녀의 정조의 가치(# 70, # 71).

나. 변한 가치들

- (1) 나라의 가치. 약화됨(# 20, # 21, # 22).
- (2) 忠孝의 가치. 약화됨(# 151).
- (3) 핵가족과 시부모의 가치. 시부모 가치 후퇴함(또는 핵가족 가치 상승)(# 129).
- (4) 가문의 영광과 개인 성공의 가치. 개인 성공의 가치 상승(또는 가문의 영광의 가치 하락)(# 125).
- (5) 가문 또는 가계계승의 가치. 하락함(# 33, # 31, # 125).
- (6) 실용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의 가치. 예술적/감정적인 것의 가치 상승(또는 실용적인 것의 가치 하락)(# 105).
- (7) 복종, 순종의 가치. 하락함(# 115, # 148).
- (8) 높은 벼슬의 가치. 쇠퇴함(# 30).
- (9) 능력의 가치. 상승함(# 101, # 115, # 141).
- (10) 근로의 가치. 후퇴함(# 116).
- (11) 깨끗한 인생과 풍부한 인생의 가치. 풍부한 가치관의 상승(# 106).
- (12) 남아선호가치. 약화됨(# 33, # 66).
- (13) 아이 기르는 재미의 가치. 상승했을 가능성 있음(# 31).
- (14) 개인권리의 가치. 상승함(# 45).

(15) 미래의 가치. 상승함(# 99).

參 考 文 獻

- 李勳求(1980). 韓國 1971-1980: 그 價値觀의 變化. 行動科學研究報告, 124, 1-25.
- 車載浩(1980). 韓國人的 性格과 意識: 韓相福·車載浩·李文雄·梁瑋·安秉萬·慎侑根. 韓國文化의 連續과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 韓國社會科學研究協議會, pp. 658.
- 車載浩(1985). 價値觀의 變化, 韓國社會科學研究協議會 創立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光復 40年: 韓國社會의 變化와 問題” 發表論文, 서울, 1985. 8. 30-31.
- 車載浩·鄭範謨·李星診(1975). 韓國의 男兒尊重思想. 서울: 韓國行動科學研究所.
- 韓相福·車載浩·李文雄·梁瑋·安秉萬·慎侑根(1980). 韓國文化의 連續과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 韓國社會科學研究協議會.
- Baltes, P. B.(1968).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sequences in the study of age and generation effects. *Human Development*, 11, 145-171.
- Baltes, P. B., and Reinert, G.(1969). Cohort effects in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as revealed by cross-sectional 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1, 169-177.
- Buss, A. R.(1974). Generational analysis: Description, explanation, and theory. *Journal of Social Issues*, 30, 55-71.
- Cha, Jae-Ho.(1979). Old and new values of children in Korea. *Korea Journal*, 19, 19-31.
- Kluckhohn, F. R., and Strodtbeck, F. L.(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l.: Row & Peterson.
- Lee, Hung-Tak.(1982). Causes of son preference in Korea: A socio-demographic analysis. Research report to WHO.
- Nie, N. T., Hull, C. H., Jenkins, J. G., Steinbrenner, K., and Bent, D. H.(1975).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McGraw-Hill.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Schaie, K. W.(1965). A general model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problems. *Psychological Bulletin*, 64, 92-107.
- Wohlwill, J. F.(1970). The age variable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Review*, 77, 49-64.

ABSTRACT

Generational Differences in Values, Attitudes, and Beliefs among Korean Adults as of 1979: 1. Generational Differences in Values

Cha, Jae-Ho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 177-item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600 Korean married adults, 300 in their twenties and 300 in their fifties or older, in a study designed to assess changes occurring in values, attitudes, and beliefs among Koreans over the span of past 30 years. The present report presents only the results from the 45 items that dealt more directly with values. An incidental sample of 50 were interviewed at their residence for each of the cells formed by a Sex (2) x Generation (2) x Education/Urban-Rural Residence (3) orthogonal design. Data were analyzed for (1) the current status of values as of 1979 and (2) evidence for epochal changes and the directions of such changes in the values studied. Of the items analyzed, 20 did not show any generational differences, but the remaining 25 did show genera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adults in their twenties and those in their fifties or older. Significant inter-generation differences as well as significant main effects of the education-residence variable and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generation and education-residence variables, indicated that 15 of the values covered underwent changes sometime in the past 30 years and that 14 other values did not go through any significant changes in the same span of time. The present study represent a first application of a methodology which permits determination of possible epochal changes in values, attitudes, and beliefs as well as their generational differences from synchronic (cross-sectional) as contrasted with diachronic data.